

『東醫寶鑑』 「神」門 鍼灸法에 대한 考察

김 영 진¹ · 이 준 무¹

¹상지대학교 경혈학교실

Study on the metho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Shin section (in the Naeg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Yong-Jin Kim¹, Joon-Moo Lee¹

¹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how the rationale of point-selection on the method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Shin section(in the Naeg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Methods : First, We summarized the cause of each disease in the Shin section(in the Naeg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Then, We explained the rationale of acupuncture point-selection referring to the cause of disease, physiology of the Oriental medicine, exposition of acupuncture point name, character of each acupuncture points, flow of meridian pathways and specific acupuncture points etc.

Results and Conclusions : Total 44 acupuncture points were used in the Shin section(in the Naeg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Most of acupuncture points were specific acupuncture points. but, some rationale of acupuncture point-selection were explained by the cause of disease, physiology of the Oriental medicine, exposition of acupuncture point name, flow of meridian pathways etc.

Key words : Donguibogam, specific acupuncture points, rationale of acupuncture point-selection

I. 序 論

『東醫寶鑑』은 임진왜란을 지난 5년만인 宣祖 29년에 太醫 許浚이 宣祖의 命을 받들어 儒醫 鄭碯, 太醫 楊禮壽, 金應鐸, 李命源, 鄭禮男들과 함께 局을 개설하고 撰集하게 되었는데, 아직 완성을 보기 전에 다시 丁酉의 亂을 만나 諸醫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일은 중단되었던 것이

다. 그 후 宣祖가 다시 許浚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그 撰集을 완성케 하였는데, 그 때에 內臧方書 500卷을 내어 考證에 힘쓰게 하였다. 許浚이 정성을 다하여 피난길 속에서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전후 10여년에 걸쳐 光海君 2년에 이르러 비로소 그 集을 마치게 되었다¹⁾. 『東醫寶鑑』은 현재 한의학 교육 커리큘럼의 기본이 되고, 임상에서도 참고 및 활용도가 가장 높은 책 중 하나로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고 연구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여 본 論文은 『東醫寶鑑』 「神」門의 鍼灸法에 초점을 두어

• 교신저자: 이준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33-730-0662, Fax. 033-730-0653, E-mail : jmlee@sangji.ac.kr

• 투고: 2006/11/30 • 심사: 2006/12/05 • 채택: 2006/12/06

각 症狀別로 그 原因과 더불어 각각의 穴이 제시된 이유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1. 原文은 대성문화사 『東醫寶鑑』(1999)을 기본으로 하였다.
2. 각 症狀의 原因을 『東醫寶鑑』 및 『東醫精神醫學』(현대의학서적사, 1987)을 토대로 간략히 요약하였다.
3. [考察]에서는 증상별 각 穴들이 나열된 이유와 의의를 病因, 臟腑生理, 穴名解, 穴性, 歸經 및 流注, 特定穴 등을 참고해 설명하였다.

III. 本 論

[原文]

癲癇

晝發 治陽蹻(申脈) 夜發 治陰蹻(照海) 各灸二十七壯<易老> 又灸 百會 風池<資生>

[注釋]

癲癇은 오늘날 간질발작과 유사한 병증으로, 『黃帝內經』에서는 증상위주로 의식상실, 경련발작, 의식혼미나 정신증상 등이 수반되는 질환은 모두 癇症으로 취급하였다²⁾. 『東醫寶鑑』에서도樓英의 『醫學綱目』을 인용해 “痰在膈間 則眩微不仆 痰溢膈上 則眩甚 仆倒於地 而不知人 名之曰癲癇 大人曰癲 小兒曰癇 其實一也.”라 하여癲癇이 지금의 간질발작과 유사함을 말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胎病 즉, 유전적 소인이나 心氣不足, 腎虛, 氣虛 등으로 痰, 火, 驚 이 유발되어 癲癇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평

소 주류, 청량음료수, 과실, 肥甘之物 등의 과잉 섭취로 체내 痰飲을 유발하여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²⁾.

[考察]

陽蹻脈은 申脈에서 시작하여 風池에서 끝나는 奇經八脈 중의 하나로 陰氣不足으로 陽氣偏盛하여서 출현된 眼病 혹은 不眠, 眼疾患, 狂症, 癲癇之類에 유효하며, 三陽經의 氣를 三陰經에 連絡하여 三陽經의 氣를 조절하는 脈이다³⁾. 申脈穴은 足太陽經에 속함과 동시에 陽蹻脈의 起始穴이자 十三鬼穴의 다섯 번째 혈로서 疏表邪, 治風痰, 寧神志, 舒筋脈의 穴性을 가지고 있어 癲癇에 응용되고 있다. 申脈은 八脈交會穴로 督脈과 通하는데 척주 속을 貫通하여 위로 올라가 腦에 絡하여 精神科疾患이나 頭部疾患에 응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申脈이라는 穴名의 뜻을 풀이하여 보면 申에 申時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申時는 오후 3시에서 5시경으로 이때 氣血은 膀胱經으로 흘러들어간다 하여 申脈이라 이름하였다³⁾. 그러므로 낮에 발병한 癲癇에 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陰蹻脈은 然谷에서 시작하여 睛明에서 끝나는 奇經八脈 중의 하나로 陽氣不足으로 陰氣偏盛하여 출현된 嗜眠, 多眠 등의 증상에 유효하고, 三陰經의 氣를 三陽經에 連絡하며 三陰經의 氣를 調節하는 脈이다³⁾. 照海穴은 足少陰經과 陰蹻脈에 속하는 穴로 깊고 넓은 바다 가운데서 밝게 빛난다는 뜻이다. 즉 陰經脈의 陽穴에 속한다⁴⁾. 照海는 通經和熱, 泄火疏氣, 清神志, 利咽喉의 穴性을 가지고 있으며, 八脈交會穴로서 申脈과 함께 짝을 이루어 陰과 陽을 조절하는 穴이므로 밤에 발생하는 癲癇에 응용할 수 있다.

百會는 手足三陽經과 督脈의 會穴로 熱性病을 다스리는 督脈의 대표적인 穴이다. 百會는 熄

肝風, 潛肝陽, 淸神志, 回陽固脫, 舉陽氣下陷, 淸熱開竅하는 효능이 있어³⁾ 腎中의 陰火가 上逆하는 데 따라 肝의 相火도 上逆하여 오는 搐搦과 같은 발작에 효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風池는 足少陽經에 속하는 穴로서 동시에 手少陽三焦經과 陽維脈, 陽蹻脈의 會穴이 된다. 陽維는 인체의 陽을 유지하고 받친다는 뜻으로 만약, 陽維脈이 인체의 陽을 유지하고 지탱하지 못한다면 물결이 넘실거리듯 인체를 수렴하고 가눌 수 없게 된다³⁾.

風池는 少陽이 축이 되고 陽蹻脈이 다리를 형성하고 陽維脈이 모든 陽을 결속하는 바, 肝膽의 相火가 動하여 風을 발생하여 생긴 운동계통 질환에 효과가 있으므로 癲癇의 발작에 사용할 수 있다³⁾.

본 조문에서의 申脈과 照海는 病의 발병시기에 따른 경락생리학적 選穴로 보여지며, 百會와 風池는 癲癇의 병인론적 측면에서의 選穴이라 할 수 있다.

[原文]

癲病

取 鳩尾 後谿 湧泉 心俞 陽交 三里 太衝 間使 上腕

凡癲病 必先下之 乃可灸 不然則氣不通 能殺人 針不拘此<綱目>

[注釋]

『東醫寶鑑』에서는 癲과 癇의 구별에 있어서 癲은 사람이 평소와 달라지는 인격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즉 평소 말을 잘 하던 사람이 癲症을發하면 침묵하게 되고,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은 말이 많아진다. 그리고 심하면 몸을 구부리고 앉거나, 누워서 한 곳 만을 멍하니 응시하기도 하

며, 마음은 항상 즐겁지 않고 언어의 논리성이 없어 長幼나 親疎를 가리지 못하게 되니, 마치 술에 취한 듯 또는 치매에 걸린 듯한 것이 癲症이라고 하였다. 癇은 발작이 오면 갑자기 短叫聲을 지르며, 의식상실 되면서 졸도하고, 牙關緊急이 오면서 입으로는 涎沫을 토하게 된다. 그러나 잠시 후 곧 멀쩡하게 깨어난다고 하였다²⁾.

두 번째 문장은 癲病의 원인이 痰, 火, 驚으로 요약되는 바, 이 경우는 胸腹部的 痰熱을 下法으로 먼저 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痰, 火, 驚의 원인이 비록 心氣虛, 腎虛, 氣虛 등에 있다고는 하나 病이 急症일 때는 먼저 그 標를 다스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여겨진다.

[考察]

鳩尾는 任脈의 絡穴로서 『靈樞』에서는 膏之原이 鳩尾에서 나온다 하였다³⁾. 張志聰은 ‘膏란 臟腑의 기름막’이라 하였고, 丹波元簡은 ‘膏은 격막이고 心 아래가 膏이다’라고 하였으나 「春秋元命苞」에 이른 ‘膏는 神의 液이다’⁶⁾라 한 것이 본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後谿는 手太陽小腸經의 兪木穴이다. 兪穴은 體重節痛을 主하고, 木氣는 肝에 통하며 肝은 風을 주관하는 故로 後谿는 止痛과 舒肝祛風의 효과가 있다. 또한 後谿는 八脈交會穴로서 督脈과 통하는데 督脈은 위로 腦와 絡하므로 腦와 유관한 질병이나 熱病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³⁾.

湧泉은 足少陰腎經의 井木穴이자 起始穴로 自經瀉穴에 해당된다. 湧泉은 지하에서 샘이 솟구쳐 나오듯이 腎이 나오는 곳이다. 足少陰經은 足太陽이라는 陽을 이어받아 이 經脈의 陰에 합쳐져 순조롭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므로 湧泉은 腎陰虛로 인한 머리와 가슴의 火熱을 끌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볼 수 있다⁴⁾.

心俞는 心의 背兪穴로 心의 診斷穴이자 治療

穴로 알려져 있다. 『東醫寶鑑』에서 “風眩之病起於心氣不足 胸上蓄熱 實痰熱相感而動風 風心相亂 則悶瞶 故謂之風眩”⁷⁾이라 한 것처럼 癲癇의 한 원인으로 심과 관련이 있으므로 심의背俞穴인 心俞를 응용했을 것이다.

陽交는 足少陽膽經의 穴이자 陽維脈의 郄穴인데, 足三陽經과 陽維脈이 만나는 곳이라 하여 陽交라 하였다. 郄穴은 급성병증치료에 多用하는 穴로서, 陽交는 寒熱痺, 瘡, 噤, 驚, 癲, 癩癧 등의 증상에 사용한다⁸⁾.

足三里는 足陽明胃經의 合土穴이며 六腑下合穴 중 胃腑에 해당하고, 四總穴에 속한다.三里는 四末의 邪氣를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며, 補하면 健脾의 효능이 있고, 瀉하면 平肝, 降逆通腸의 효능이 있는 穴이다. 또한 이 穴은 全身強壯의 要穴로서 소화기계통질환 뿐 만 아니라 순환, 호흡, 비뇨생식기계통질환에도 두루 응용되는 穴이다⁸⁾.

太衝은 足厥陰肝經의 俞土穴이고 原穴이다. 이는 肝經의 氣血을 조절하고 止痛의 효능이 있다. 陰虛肝旺, 心腎不交, 肝鬱氣滯瘀血 등으로 인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⁵⁾. 『淮南子 詮言』에서는 ‘神이 다스려지면 形이 따라오고, 形이 이기면 神이 窮해진다. 총명함이 비록 쓰이지만 반드시 모든 神으로 돌아가는데 이를 太衝이라고 한다.’⁸⁾고 하여 神과 관련된 太衝의 모습을 설명하였으니 참고할 만 하다.

間使는 手厥陰心包經의 經金穴이며 鬼路라고도 하는데 扁鵲의 十三鬼穴 중 하나이다. 『古法新解會元鍼灸學』에서는 ‘金水相合而生味苦辛, 補之益脾而通氣, 瀉之安神而清心’이라 하였고,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心病, 其色赤, 心痛氣短, 手掌煩熱, 或啼笑罵詈, 悲思愁慮, 面赤身熱, 其脈實大而數, 此爲可治. 春當刺中衝, 夏刺勞宮, 秋刺間使, 冬刺曲澤, 皆瀉之.’라 한 것을 참고할 때⁸⁾,

間使는 熱入心包로 인한 神昏, 譫狂 혹은 痰濁蒙蔽心包로 인한 정신계통질환에 응용할 수 있다.

上脘은 任脈의 穴이자 동시에 足陽明胃經, 手太陽小腸經과의 會穴로 주로 소화기계통의 질환에 응용되는 穴이나 본 조문에서는 肥甘之物 過食으로 胃部에 쌓인 痰濁을 제거하여 다른 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요약하면, 鳩尾는 穴名과 穴位의 특성을 반영한 選穴로 보여지며 後谿, 湧泉, 心俞, 陽交, 足三里, 太衝, 間使는 五輸穴과 原絡郄募穴에 속하는 特定穴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 중 後谿, 湧泉, 間使는 癇病의 원인인 火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足三里와 上脘은 痰, 太衝은 驚을 다스리는 것으로 보인다.

[原文]

癲狂

取 豐隆 期門 溫留 通谷 築賓 陽谷 後谿 陰谷 <甲乙>; 又灸 間使 三十壯 <得效>; 又灸 天樞 百壯 <得效>

[注釋]

癲癇과 癲狂은 서로 유사한 듯 보이나, 癲癇은 지금의 간질발작과 유사하며 癲狂은 정신병과 유사하다. 癲狂을 다시 구분하자면 癲症과 狂症으로 나뉘는데, 癲症은 지금의 정신분열병의 破瓜型이나 妄想型 또는 躁鬱病의 鬱症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陰的이라 할 수 있으며, 狂症은 정신분열병 중의 緊張病型과 躁鬱病의 躁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陽的이라 할 수 있다²⁾. 원인면에서도 癲症과 狂症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데, 癲症은 선천적 영향, 痰熱, 心血不足, 정서불안 및 스트레스, 脾胃虛寒 등이

원인인 반면, 狂症은 風邪入血, 心火旺盛으로 인한 腎水不足, 心胸間의 痰鬱結, 膏粱珍味の 過食, 肝膽鬱火 등이 원인이 된다. 그러나 두 증상 공통적으로 痰, 熱,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므로 본 조문에서 아울러 穴을 제시한 것이라 여겨진다.

[考察]

豐隆은 足陽明胃經의 絡穴로서 足太陰脾經과 表裏相通하는데, 足陽明經은 多氣多血하여 穀氣가 隆盛한 脈이다. 이 隆盛한 기운이 豐隆에 이르러 넘쳐흐르므로 豐隆이라 이름하였는데⁸⁾ 豐隆을 取함으로써 肥甘之物로 인한 痰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期門은 肝經의 募穴이며 足厥陰經과 足太陰經, 그리고 陰維脈의 會穴이다. 傷寒論에서는 熱邪가 血室에 들어갔을 때 譫語등의 狂症이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는 血熱이 위로 心神을 침범하여 神明을 혼란시키기 때문이다⁹⁾. 血室은 肝脈에 속하고 肝은 魂을 藏하므로 熱이 血分에 들어갔을 때는 肝의 募穴인 期門을 取하여 血分의 實邪를 瀉할 수 있는 것이다.

溫溜는 手陽明大腸經의 郄穴로서 經脈氣血이 聚集, 匯聚하는 孔隙으로 急性疾患治療에 多用한다. 清邪熱, 理腸胃의 效능이 있으며³⁾ 『針灸甲乙經』에서는 癩疾, 嘔吐, 鼓頤, 狂言見鬼, 狂仆 등의 증상을 주치한다 하였다. 그러나 『鍼灸穴名解』에서는 ‘溫은 화창하고 따뜻한 것이고, 溜는 흘러 움직이는 것이다. 이 穴에는 따뜻하게 하고 홀고 통하게 하는 힘이 있으니, 그 치료 증상을 보면 肘臂寒痛, 寒厥頭痛 등 일체의 寒濕이 濡滯된 증상이다.’라고 하여 상반된 해석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郄穴이 急性病症을 치료하고, 急性病症은 특성상 實證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針灸甲乙經』의 主治症이 옳다고 여겨진다.

通谷은 足太陽膀胱經의 足通谷과 足少陰腎經의 腹通谷이 있다. 腹通谷은 腎經과 衝任脈의 會穴로, 主로 腹痛, 嘔吐, 泄瀉 등 虛寒性 消化器疾患을 치료하므로 본 조문의 通谷은 足太陽膀胱經의 榮水穴인 足通谷이라 여겨진다. 榮穴은 주로 身熱을 다스리는데 循環器疾患으로 오는 發熱 혹은 精神科疾患에 特效가 있다.

築賓은 足少陰腎經의 穴이자 陰維脈의 郄穴이 된다. 陰維脈은 三陰經 상호간의 氣를 조절시켜서 人身의 陰을 수호하는 脈으로 苦心痛, 精神病에 유효하다.

陽谷은 手太陽小腸經의 經穴이다. 陽谷은 陰郄이 주관하는 癲狂, 妄言, 熱病 등을 다스리는데, 이는 陽谷이 陰郄과 穴의 표면은 다르지만 穴의 바닥은 같아서 靈竅와 관련이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陰谷은 足少陰經의 合水穴이다. 祛濕通洩, 滋腎清熱, 疏泄厥氣, 利導下焦의 效능이 있으므로, 陰谷은 心火旺으로 인한 腎水不足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間使에 뜸을 뜬다는 것은 위 癰病 조문에서 間使에 대해 서술한 바와 같다.

天樞는 胃經의 穴이자 大腸의 募穴이다. 天樞는 疏調大腸, 調中和胃, 理氣消滯 등의 效능이 있는데 이 곳에 뜸을 떠서 大腸의 배설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內臟의 熱을 제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東醫寶鑑』에 “大下愈狂⁷⁾”이라 하였으니 참고할 만 하다.

본 조문의 穴들도 모두 五輸穴, 原絡郄募穴에 속하는 特定穴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 중 豐隆은 治痰의 혈이며, 期門, 通谷, 後谿, 間使, 天樞 등은 熱病과 관련된 穴들로 병인론적 選穴로 볼 수 있다.

[原文]

健忘

取 列缺 心俞 神門 中脘 三里 少海 又灸百會
<綱目>

[注釋]

健忘은 잘 잊어버리는 것으로, 자기가 행한 前事와 前言을 忘却하기를 잘 하므로 事物을 처리할 때 有始無終하며 對話를 하여도 首尾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원인으로는 思慮過度로 인한 心脾虛損, 心腎不交, 上氣不足 下氣有餘 등이며, 怔忡이 오래되어도 健忘이 되기도 한다²⁾.

[考察]

列缺의 어원에 ‘옛날에는 雷電之神을 列缺이라고 불렀다. 雷電은 대기중에서 위 아래를 뚫어 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의 巔頂에 陰沈鬱痛의 병이 있으면 頭重目眩한데, 이 穴을 刺하면 맑고 상쾌해진다. 이는 공중에 벼락이 치면서 뿌영던 하늘이 밝아지고 대기가 맑아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穴을 雷電之神에 비유하여 列缺이라 하였다.’⁴⁾라고 한 점을 참고할 때 列缺이 頭部를 맑게 해주는 穴임을 알 수가 있다. 列缺은 또한 四總穴로서 頭項部의 疾患을 다스리며, 肺經의 絡穴로서 手太陰經別이 頭部에서 手陽明經과 合하고, 手陽明經은 大椎에서 督脈과 交會하여 經氣가 頭項을 通達한다. 列缺은 또 八脈交會穴로서 任脈과 相通하고 任脈은 口脣部에서 督脈과 貫通하므로 이 穴은 呼吸器疾患, 咽喉疾患 및 頭部疾患의 要穴임을 알 수 있다¹⁰⁾.

心俞는 心의 背俞穴이고, 神門은 心經의 俞土穴이자 原穴이며, 少海는 心經의 合水穴이다. 心은 君主之官이고 神明出焉하며 神을 藏한다. 思慮가 過多하면 心이 傷하여 血이 耗散되고 神不

守舍하여 健忘이 생기므로 心을 우선 補해야 한다. 그러므로 心의 背俞穴, 原穴, 合穴인 心俞, 神門, 少海가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

中脘은 胃의 募穴이며 手太陽小腸經, 手少陽三焦經, 足陽明胃經과 任脈의 會穴이다. 和胃氣, 化濕滯, 理中焦, 調升降의 穴性이 있으며 健脾化痰의 대표적인 穴이다. 足三里 역시 上述한 바와 같이 胃經의 合土穴이고 六腑下合穴중 胃腑의 穴로서 調理脾胃, 強健脾胃의 대표적인 穴이다. 脾의 官도 思를 主하므로, 思慮過多로 脾가 傷한 則 胃氣가 衰憊하고 思慮가 더욱 깊어지는 故로 健忘이 생긴다. 그러므로 補脾土의 穴로 中脘과 足三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百會는 上述한 바와 같이 巔上에 위치한 三陽五會의 穴이며, 『鍼灸大成』의 標幽賦에서는 三才穴의 하나로 天에 應한다고 하였다. 박¹¹⁾ 등에 따르면 百會는 腦를 맑게 해주고 정신적인 면을 안정시켜주는 穴로서, 체내의 생리적인 陽이 下陷한 경우에 그 陽氣를 升陽시켜주는 穴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上氣不足으로 인한 健忘에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요약하면, 列缺과 百會는 각각 四總穴과 三才穴에 속하는 特定穴이며, 心俞, 神門, 少海는 心經의 穴들로 병인 및 경락생리학적 選穴이다. 그리고 中脘, 三里는 健脾의 대표혈로 健忘의 병인론적 選穴로 볼 수 있다.

[原文]

失志痴駘

取 神門 中衝 鬼眼 鳩尾 百會 後谿 大鍾<綱目>

[注釋]

‘정신을 잃고 바보처럼 된 것’으로 해석이 되

며¹²⁾ 지금의 痴呆나 躁鬱病 등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치매는 初老期 혹은 老年期에 발생빈도가 높으며 최근에는 뇌의 병적 노화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밝혀지고 있다. 반면 初老期나 老年期에 국한하지 않은 정신장애로 기능성 정신장애가 있는데, 이는 뇌의 노화와 관련이 없는 조울병, 망상증, 신경증 등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呆病에 대해 마치 바보와 같이 묵묵히 말이 없으며, 몇 끼를 굶고도 태연하게 지내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痰의 停滯와 抑鬱不舒를 들고 있는 점을 보아서 의학의 痴呆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조문의 혈들이 治痰의 穴성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失志痴騃는 예를 들어, 노인성 우울에 해당하는 가성치매(pseudo-dementia)와 같은 기능성 정신장애로 보는 것이 어떨까 여겨진다.

[考察]

神門은 心經의 原穴이고 瀉心之火, 開竅益智의 효능이 있으며, 中衝은 心包經의 井木穴로 邪熱이 心包에 침입하면 神明을 주관하는 心의 기능이 장애되어 의식이 혼미해지며 헛소리를 하고 잠을 못 이루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中衝을 放血하면 開竅勞厥, 清心退熱의 효과가 있다.

鬼眼은 足太陰脾經 隱白穴의 異名이기도 하며³⁾ 隱白과 少商을 합쳐서 부르는 經外奇穴이기도 하다¹³⁾. 隱白穴은 足太陰脾經의 井木穴이고 十三鬼穴의 하나로 鬼壘이라고도 하는데 調血統血, 扶脾溫脾, 清心寧神의 효능이 있다. 經外奇穴의 鬼眼도 두 엄지손가락과 두 엄지발가락을 묶어서 동시 取穴하는데 五癇等症에 효과가 있으며 뜸을 뜨면 좋다하였다. 본 조문의 鬼眼이 隱白穴 하나만을 뜻하는지, 少商을 합쳐 부르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共히 정신질환에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鳩尾는 上述한 바와 같고, 安神寧心豁痰의 효능이 있으며, 後谿는 通於督脈하고 百會와 더불어 上入絡腦하여 정신질환을 다스린다.

大鍾은 足少陰腎經의 絡穴로 足太陽膀胱經과 얽혀 통해서 陰陽이 합쳐짐을 얻어 전신을 動養한다. 이 穴의 치료 증상은 모든 虛하고 不足한 것에 특효가 있는데 善悲, 不樂 등의 증상에 대해 興陽振奮시키는 힘이 있다⁴⁾.

본 조문의 失志痴騃는 東醫寶鑑 본문 중에 자세한 언급이 없어 난해한 점이 있으나 神門, 中衝, 鬼眼 등 神病과 관련된 特定穴들이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原文]

善恐心惕惕

取 然谷 內關 陰陵泉 俠谿 行間<綱目>

[注釋]

善恐心惕惕은 잘 무서워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의미하는데, 心拍動이 불쾌하게 自覺되는 心悸亢進의 일종이며 한의학의 驚悸 혹은 怔忡에 해당한다. 둘은 서로 유사하나 驚悸는 매사에 잘 놀라고 그럴 때 마다 心悸亢進이 오는 것이지만(有時而作), 怔忡은 놀라지 않고도 수시로 心悸亢進이 온다는 점(無時而作)이 다르다.

[考察]

然谷은 足少陰腎經의 榮火穴이며 陰驕脈의 所生處이다. 즉 然谷은 陰中の 陽穴로서 坎卦 가운데 一陽이 있어 少火生氣하는 이치와 상통한다³⁾. 『石室秘錄』에도 ‘心은 반드시 腎水의 滋養

을 받아야 하고,腎은 반드시 心火의 溫暖을 얻어야 하니 驚惕不安이 心腎不交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然谷을 取하여 心悸를 다스리는 까닭일 것이다.

內關은 手厥陰心包經의 穴이자 八脈交會穴로 陰維脈과 相通는데 陰維脈이 병들면 苦心痛을 앓는다 하였다. 心包經은 胸中에서 起하고 內關에서 三焦經으로 別走하는데 胸中은 宗氣가 모이는 곳이고 心肺가 居하는 곳인 故로 內關은 行氣活血, 宣肺理氣, 寧心安神, 寬胸利膈의 효능이 있다³⁾.

陰陵泉은 足太陰脾經의 合水穴로 脾의 運化作用을 촉진하며, 運中焦, 化濕滯 등의 효능이 있다. 그러므로 陰陵泉은 痰飲停蓄으로 인한 心季症狀에 사용할 수 있다.

俠谿와 行間은 각각 足少陽膽經, 足厥陰肝經의 榮穴에 해당한다. 그러나 俠谿는 自經補穴이고, 行間은 自經瀉穴이다. 즉 心膽虛怯으로 인한 驚悸에는 俠谿를 補하고, 思慮過度 不遂所願으로 인한 驚悸怔忡에는 行間을 瀉하여 肝의 疏泄機能을 원활히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原文]

心澹澹大動

取 大陵 三里<綱目>

[注釋]

澹澹은 물결이 요동치는 모양을 나타내며, 心澹澹動이라는 것은 놀라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물결치듯 뛰는 것을 말한다²⁾.

[考察]

『靈樞』에 '手厥陰脈에 是動病이 생기면 心澹澹大動한다.'고 하였다. 是動病이란 經脈에 생긴

병증후의 하나로 十二經脈에 病이 생기면 해당 經脈과 연계된 臟腑들에 병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증상에 따라 是動病과 所生病으로 나눈다. 是動病은 밖에서 작용한 病因에 의하여 經脈과 그와 연계된 장부에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일부 학자들은 체표 내장 반사로 보며 所生病은 내장 장기의 병적 현상이 經絡을 통하여 체표면에 반영되는 증후군을 말하는 데 이것을 내장 체표 반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옛 의학서마다 是動病과 所生病에 대한 견해를 서로 달리하고 있다. 是動病은 外因에 의해 생긴 것이고, 所生病은 內因에 의해 생긴 것이고 또한 是動病은 經絡의 病이고 所生病은 臟腑의 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매 經脈들의 是動病과 所生病을 종합해보면 所生病과 是動病은 비슷하며 치료에서도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종합적으로 병 증후를 관찰하고 있다¹⁴⁾.

大陵은 心包經의 兪土穴이자 原穴이고 自經瀉穴이 된다. 또한 大陵은 清心寧神, 和胃寬胸의 효능이 있어 手厥陰脈의 是動病人 心澹澹大動에 사용될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心澹澹大動의 또 다른 원인으로 痰動을 제시하고 있는데 足三里는 調理脾胃하여 健脾化痰의 효능이 있으므로 心澹澹大動에 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조문의 大陵, 三里는 각각 是動病, 痰動으로 인한 心澹澹大動의 병인론적 選穴로 볼 수 있다.

IV. 結 論

1. 『東醫寶鑑』「神」의 鍼灸法에서는 증복을 포함하여 총 44개의 穴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7개 穴은 灸法에 사용되었다.
2. 八脈交會穴(申脈, 照海, 後谿, 列缺, 內關),

十三鬼穴(鬼眼, 申脈, 間使), 五輪穴(後谿, 湧泉, 三里, 太衝, 間使, 陽谷, 陰谷, 神門, 少海, 中衝, 然谷, 陰陵泉, 俠谿, 行間, 大陵), 背俞穴(心俞), 六腑下合穴(足三里), 四總穴(足三里, 列缺), 原絡郄募穴(列缺, 陽交, 豐隆, 期門, 溫溜, 築賓, 天樞, 神門, 中脘, 大鍾, 內關, 大陵), 三才穴(百會), 自經補瀉穴(神門, 後谿, 湧泉, 大陵, 中衝, 俠谿, 行間) 등 特定穴이 주로 사용되었다.

3. 病因論 및 經絡生理學的 측면에서의 選穴이 상당수 있었다.
4. 일부는 穴名解를 통해 選穴의 이유를 밝힐 수 있었다.
5. 『東醫寶鑑』의 鍼灸法은 穴들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穴들에 대한 기존의 해설이 부족한 고로 향후 鍼灸法 選穴의 원리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1.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 探求堂. 1993 : 319.
2. 黃義完, 金知赫. 東醫精神醫學. 부산 : 현대의학서적사. 1987 : 401-2, 411, 505, 605, 602.
3. 전국한의학대학교 침구정혈학교실. 鍼灸學(上). 1판. 서울 : 集文堂. 2000 : 752, 523, 750, 707, 757, 734, 327, 399, 538.
4.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2기. 國譯 鍼灸穴名解 鍼灸穴名釋義. 서울 : 一中社. 1996 : 291, 285-6, 119, 288.
5. 呂景山, 何樹槐, 耿恩廣. 單穴治病選萃.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6 : 243, 107, 276, 201.
6. 李慶雨. 譯解編注 黃帝內經靈樞1. 서울 : 여강출판사. 2000 : 65-6.
7. 許浚. 東醫寶鑑 內景篇. 서울 : 大星文化社. 1999 : 57, 64.
8. 王德深. 中國鍼灸穴位通鑿. 北京 : 青島出版社. 1994 : 1478, 918, 929, 1742, 443, 950.
9. 문준진, 안규석, 김성훈, 박종현, 김동희, 이선구 외. 傷寒論精解. 6판. 서울 :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1 : 308.
10. 정희철, 손인철. 四總穴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996 ; 13(1) : 303.
11. 박인규, 임종국. 三才穴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2004 ; 9(1) : 203-4.
12. 許浚. 東醫寶鑑1. 內景篇. 서울 : 여강출판사. 1994 : 143.
13. 楊繼洲. 校訂注解 鍼灸大成. 서울 : 도서출판 정담. 2000 : 383.
14.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서울 : 도서출판 정담. 1998 : 896.